

科學技術記事는 쉬워야...

우리나라 신문사중에서 가장 먼저 과학부가 독립부서로 설치된 곳은 한국일보사로, 1958년 3월 1일이었다. 그때 견습기자로 한국일보에 입사한 필자는 과학기술기사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과학기술기사를 독자가 알기 쉽고 재미있게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사를 써서 편집부에 넘기면 기사가 재미없다거나 내용이 신통치 않다고 칼질하기가 일쑤였다. 아인슈타인은 전문용어를 쓰지않고도 쉽게 설명했다는데 우리도 과학기술기사를 쉽고 재미있게 쓰는 지혜가 아쉽다.



李鍾秀
〈기술평론가/본지 편집위원〉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무서운 가속도로 해서 그야말로 초진분보(秒進分步)의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활동성과는 홍수처럼 범람 상태를 이룬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상태에 비추거나 많은 사람이 언필칭 과학기술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언론에서 다루는 과학기술에 관한 보도기사의 양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

지가 않다. 한마디로 과학기술기사가 하지만 종류가 꽤 많다. 뉴스, 해설, 특별한 읽을거리, 뒷이야기, 개인에 대한 스토리, 연재물, 과학기술자의 강연 등의 요약, 과학자의 탐험이야기, 연구소에 관한 르포르타주, 일요일 등의 부록기사 등 이외에도 더 추가될 수 있을 듯하다. 뉴스만 해도 화성에 보낸 패스파인더의 발사부터 착륙, 그리고 착륙 뒤의 탐사활동 등 모두 뉴스가 될 것인데 그런 류의 해외 과학기술 뉴스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 오늘의 과학기술시대의 특징이다. 그리고 과학기술기자 스스로가 연구소 등을 취재하여 발명, 발견에 대한 뉴스 등을 보도할 수가 있다.

40년 전 한국일보서 「과학부」 첫 선

한 나라의 과학기술이 진흥되려면 국가원수가 과학기술 진흥을 선도해

야한다고 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어떤 언론기관의 과학기술기사의 양이 획기적으로 많아지려면 실권있는 사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신문사에 가장 먼저 과학부가 독립부서로 설치된 곳은 한국일보사로서 1958년 3월 1일의 일이었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 보다도 얼마 뒤지지 않은 시기에 벌써 과학기사 전담부서를 만든 것은 '신문경영의 귀재'라 할 장기영(張基榮)사장의 용단의 소치였다. 나는 그해 4월에 견습 7기로 입사해서 처음부터 견습과정도 거치지 않고 과학부에 배치받아 과학기사가기 보다는 일반기사 쓰는 것부터 익혔다. 일본 아사히신문 같은 데서는 대학에 의뢰해서 과학기사를 추천받아 무시험으로 채용했다고 하는데 장(張)사장은 과학기사를 제대로 쓰게 되려면 일반기사와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필기시험, 두차례의 현장취재시험, 구두시험 등 4차례 관문을 거치게 했다.

입사 뒤에도 전체 편집회의인 화요회의에서 느닷없이 과학문제 (예를 들면 물은 몇도때 밀도가 제일 큰가) 등을 질문하곤 했다. 처음 얼마간은 부장 1명, 부원 1명이다가 근 3년간은 혼자서 과학기술기사를 썼다. 그 당시는 과학기술관련 정부기관이라야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 정도여서 아무리 부지런하게 취재를 해도 기사의 양은 얼마 안됐다. 장(張)사장의 직접 명령으로 여러 병원을 출입하면서 한국 최초로 성공한 수술 같은 것을 사회면 톱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기사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

초로 RH⁻ 혈액형 환자를 특종으로 보도할 수 있었던 것도 병원을 출입했던 덕분이었다.

64년 11월에는 조선일보에서 과학부를 신설하고 차장으로 임명해 주어 직장을 옮겼는데 그 때 장사장은 경제기획원장관점 부총리에 취임해서 정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에서는 국가의사시험문제에 잘못이 있다는 사회면 톱 기사를 보도하는 등 활동을 하던 도중 그 곳으로 부른 선우 휘(鮮于輝) 편집국장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일하기가 다소 불편해진 처지이다가 중앙일보 창간시 우선 문화부차장을 맡으면 곧 과학부를 만들어 일하게 해 준다 해서 또 일자리를 바꾸었다.

社주의 관심도가 紙面좌우

중앙일보에서는 홍진기(洪璉基)사장이 과학기술기사에 크게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기사를 직접 이러한 것을 쓰라고까지 지시를 하는 통에 신경을 써가며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신 보람을 느낄 때도 많았다. 70년의 일본 오사카(大阪)박람회(EXPO 70) 때는 그런데는 과학부장이 취재가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고 홍사장 본인도 그 박람회장을 시찰하여 현장서 만나기도 했다. 10여회에 걸친 연재물도 몇번 써 보았고 여러번 양면 또는 3면을 차지해서 특집 기사를 과학부가 만들기도 했다. 사장이 재미있어야 된다고 하니 그에 따라 자료를 많이 챙겨 세심하게 문장을 만드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획만 내면 지면은 쉽게 얻을 수가 있었다. 장기영 사장이나 홍진기사장 같이 경영수뇌가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이 깊은 신

문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기로서 행운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언론계에 그 두분과 같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깊은 사장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과학기술 기사를 독자가 알기 쉽고 재미를 느끼게끔 쓴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세계 어느 언론의 과학기술기사이건간에 공통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여기는 것이 과학기술 기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쓰느냐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부장이나 차장이 있는 부서라면 기자가 쓴 기사를 데스크라는 이름의 차장이 손질을 하게 마련이다. 차장이 없을 때는 부장이 손질을 한다. 그리고 나면 그 기사가 편집부로 넘겨진다. 특집일 때는 지면을 확보하고 나서 기사를 쓰는 것이니까 과학기술담당부서에서 넘어간 기사는 대개 그대로 쓰이게 마련이다. 그럴 때도 기사가 재미가 없다느니 내용이 별로 신통치 않다느니 한마디씩 하는 것이 편집부 기자들의 버릇처럼 돼 있다. 그런 정도의 시어머니 노릇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사회면이나 정치면 같은데서 과학기술 기사를 다뤄주도록 넘길 경우엔 반토막으로 내버리는 것은 흔한 일이고 쓸 수가 없다고 제쳐놓기도 한다. 그래서 편집부기자가 인정해주는 과학기술기자면 우수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조차 있다.

전문용어 배제하고 쉽게 써야

아인슈타인박사나 원자폭탄 제조지휘자 오펜하이머박사같은 과학대가들은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과학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고 한다. 과학기술기자들은 편집부의 시어머니 노릇하는 기자의 칼질을 면하기 위해서도 쉬운 기사를 써야 한다. 나는 이런 뜻밖의 경험을 겪은 일이 있다. 언제 게재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962년 3월 19일의 점화(點火)에 앞서 트리마크Ⅱ형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인천항에서 내려 태능원자력연구소로 운반했을 때의 일이었다. 우리나라 235가 합계 2.1kg 정도 함유된 60여개의 우리나라 연료봉이 운반되는 모습을 우리나라 1g을 석탄 3톤으로 환산해서 석탄 6천3백여톤, 즉 3톤 적재트럭 2천1백대분이 단 1대의 운반차에 실려 경관의 호송으로 인천서 종착점까지 무사히 운반됐다는 식으로 풀어서 기사를 썼다. 그 기사를 본 편집부 기자는 참 재미있으며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회면 톱으로 올려 큰 제목을 뽑아 요란한 기사로 만들어 준 것이었다. 다른 신문은 1단기사이거나 몰수였는데 한국일보는 마치 특종 기사를 쓴 것처럼 다뤄 주었다. 그런가 하면 신문사에는 기사심사부같은 시누이 노릇을 하는 부서에서도 귀에 거슬린 비평을 하기 일쑤다. 그 부서에서도 쉽게 잘 썼다고 해줄 정도가 되면 한사람 몫의 과학기술기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과학기술기사의 양을 늘리려면 과학기술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내외 과학기술계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보를 챙겨 편집부라는 귀문(鬼門)을 무사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사심사부원의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도 되도록이면 사장의 주목을 끌게 만드는 것이 최상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㉟